

朝鮮前期 石造浮屠樣式의 一考察

鄭 永 鎬*

I. 序 言

II. 各 論

1. 靑龍寺 普覺國師定慧圓融塔

2. 檜巖寺址浮屠

3. 福泉寺 秀庵和尚塔

4. 福泉寺 學祖燈谷和尚塔

5. 傳 新興寺址 盧閑堂塔

III. 比較考察

IV. 結 語

I. 序 言

朝鮮은 國初부터 抑佛崇儒의 정책이었음을 創業당시 太祖 李成桂의 國是에서 곧 알 수 있다. 더욱이 太宗(1401—1418)은 불교에 가혹한 탄압을 가하여 全國에 242寺만을 남겨두고 이 밖의 寺刹은 모두 폐사하였으며 동시에 이들 寺院에 소속된 土地와 奴婢를 몰수하였는데, 이후 成宗(1470—1494)때 이르러는 더욱 강력한 抑佛策을 써서 太祖가 실시하였던 度牒制까지 전폐하여 出家入山을 일체 금하였고, 中宗(1506—1544)은 僧科를 폐지함으로써 불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으니 이것은 再起가 어려울 정도로 불교계의 큰 타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와 탄압중에도 世宗(1419—1449)과 世祖代(1455—1468)에는 불교가 상당한 활기를 띄어 寺刹이 다시 일어나고 승려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것은 두 임금의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世宗은 宮內에 內佛堂을 두었고 世祖는 圓覺寺를 지었으며 한편 刊經都監을 두어 여러 가지 불경의 諺解를 간행하였던 것에 의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前·後 관계에서 太祖가 비록 국가적으로 排佛의 政局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가 潛邸時 無學大師와의 관계를 잊을 수 없으며, 특히 明宗(1546—1567)때에 이르러는 文定王后가 섭정을 하면서 名僧 普雨를 중용하여 불교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당시 奉恩寺를 禪宗의 本山으로 삼고 奉先寺는 敎宗의 本山으로 삼아 禪·敎兩宗을 두었으며 아울러 王7年(1552)에 僧科를 부활시켰던 것이니 이러한 모든 一連의 관계와 諸事實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佛教美術은 이렇듯 國初이래 諸王의 政策과 그 당시의 社會的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前代인 高麗나 新羅時代와 같은 佛教國과 달라서 역시 歷代諸王의 好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 韓國史

佛策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 太祖때 釋王寺를 이룩하였던 일과 世祖가 圓覺寺를 창건하고 明宗때에 이르러 奉恩寺와 奉先寺를 크게 중창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背景과 諸事實속에서 造成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佛教的인 造形美術을 살펴면 상당한 수가 될 것인 바 이 가운데서 佛家の 禮拜와 직접 관계되는 것만을 살펴 보아도 圓覺寺址十層石塔(국보 제2호), 神勒寺多層石塔(보물 제225호), 碧松寺三層石塔(보물 제474호) 洛山寺七層石塔(보물 제499호)을 비롯하여 禪雲寺金銅菩薩坐像(보물 제279호), 祇林寺乾漆菩薩坐像(보물 제415호), 銀海寺雲浮庵靑銅菩薩坐像(보물 제514호), 水鍾寺石塔內發見金銅佛菩薩像, 無爲寺極樂殿(국보 제13호), 海印寺藏經板庫(국보 제52호), 淨水寺法堂(보물 제161호), 神勒寺 祖師堂(보물 제180호) 등 국가의 指定寶物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수십점이 있다.⁽¹⁾

石造浮屠란 石材로 建造한 僧侶의 墓塔을 말한다. 그러므로 浮屠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歲月을 두고 建造되어 왔다. 즉 浮屠는 形式이나 各部樣式 및 細部の 彫刻手法에 있어서 時代에 따라 어떠한 差異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浮屠의 造營」은 法燈이 끊기지 않는 限 당연히 존재하는 造形物인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이 비록 排佛崇儒國이 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佛教를 보호하였던 임금, 혹은 그러한 時期가 間間이 있어서 寺院은 어려운 중에서도 명맥을 이어왔으며 따라서 僧侶는 그들의 法統을 역역히 계승 하였던 것이니 오늘날 이들 僧侶의 墓塔은 각 寺刹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佛教盛國이었던 新羅·高麗時代에 있어서는 다른 佛教美術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石造浮屠도 細工을 加하여 各部彫刻과 均整한 전체의 造形으로 이른바 石造美術의 當당한 主流를 보이고 있었으니, 예컨대 廉居和尚塔(국보 제104호)이나 雙峰寺澈鑑禪師塔(국보 제57호),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보물 제137호) 등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石造浮屠라 하겠고,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興法寺眞空大師塔(보물 제365호),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국보 제102호),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국보 제101호) 등을 들 수 있다.⁽²⁾ 朝鮮時代에 이르러서의 佛教的인 造形美術은 名實共히 萎縮一路였음을 오늘날 남아 있는 塔像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石造浮屠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축현상은 朝鮮初에 비로소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다. 쉬운 예로 圓覺寺址十層石塔은 高麗下代의 建造物인 敬天寺十層石塔(국보 제86호)의 모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造形活動의 문제는 어느 時代나 마찬가지로 國初에 있어서는 그 前代의 諸樣式手法의 傳承期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

(1) 이물 遺蹟 遺物은 現地에서 寶物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에서 발행한 「文化財大觀」國寶篇과 寶物篇 上, 中을 보면 각 遺蹟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2) 同上——「文化財大觀」國寶篇 및 寶物篇 上을 參照.

(3) 이 문제에 있어서는 新羅末 高麗初期에 해당하는 10世紀의 造形物을 생각할 수 있고 三國末期와 統一新羅初期에 있어서의 諸樣相을 볼 수 있는데 어느 王朝든지 初期에는 그 前代의 樣式 手法을 一時에 바꿀 수는 물론 없고, 설

특히 朝鮮王朝에 있어서는 創意的인 造形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高麗代의 樣式과 手法을 겨우 이어 받아 造形活動의 命脈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렇듯 前代傳承의 問題를 論할 때는 李氏 王朝를 그 대표라 할 수도 있겠다.⁽⁴⁾

朝鮮時代를 壬辰倭亂(第14代 宣祖25年, 1592)을 중심으로 前・後期로 크게 나누고 있음은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 특히 美術史에 있어서도 전혀 無理가 아니다. 그러므로 壬亂 이전시대를 朝鮮前期라 할 때 上述한 바와 같이 高麗의 諸樣式 手法을 이 時期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筆者는 이미 10個의 梵鐘을 검토함으로써 이 時期의 佛教的인 金屬工藝를 살펴본 바 있다.⁽⁵⁾

필자가 本論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은 壬亂前까지의 石造浮屠樣式을 考察해 보는 일이다. 石造浮屠는 石材만이 建造物일지나 여기에는 건축적인 요소 이외에 각종 彫刻, 表面의 裝飾紋樣 등을 생각 할 수 있어 건축물인 동시에 조각품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浮屠는 그 主人公을 알 수 있고 또 그에 따르는 塔碑가 건립되어 있어서 그의 建造年代를 밝힐 수 있으므로 더욱이 주목되어 오는 造形物이었다.

필자가 羅麗代의 浮屠보다 우선 여기에서 이 時期의 石造浮屠를 살펴보려는 데는 몇 가지 意義와 目的이 있는 바, 첫째는 抑佛이었던 이 時期에 있어서 僧侶의 墓塔 建立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었는가를 實物로서 알아 보려는 것이고, 둘째로 어떠한 형식의 浮屠가 建造되어서 前代와의 樣式系譜를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세째로는 各部 表面裝飾에서 彫刻의 내용과 各種紋樣을 구별해 봄으로써 당시에 유행하였던 彫飾을 알아 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가지 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가 풍부해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다. 朝鮮 初期부터 壬亂直前까지 5基의 石造浮屠만을 여기에 검토자료로 제시 하였던 바 이것은 梵鐘 考察에 있어서 10個였을 때에 비하면 半밖에 되지 않는다.

朝鮮前期 200年間の 石造浮屠를 論함에 있어 이렇듯 少數의 遺例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나, 여기에는 建造年代와 그 主人公이 확실한 것만을 자료로 삼고 있으니 年代가 확실하지 않고 그 主人公도 알 수 없는 數基의 浮屠보다는 오히려 귀중한 5基일 것을 생각하여 自慰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좋은 자료가 발견 조사될 때 本論을 完成하려는 바 本稿는 그의 一考察로서 우선 여기에 試圖해 보고자 한다.

사 前代의 것을 제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까지는 前代 것의 再現을 되풀이 하다가 자기네의 독자적인 양식과 수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前代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것이다.

(4) 朝鮮王朝에 있어서는 애당초부터 佛教的인 造形物의 創造가 어려웠기 때문에 前代의 것을 傳承하는 일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傳承도 강력한 抑佛策下에서는 쉬운 일의 아니어서 萎縮一路란 苦悶을 하게 된다.

(5) 拙稿「朝鮮前期 梵鐘考」東洋學 第一輯(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刊 1971. 10)

II. 各 論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朝鮮前期의 石造浮屠로 5基만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자료를 예거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즉 전국적으로 볼 때 朝鮮時代의 石造浮屠는 상당한 수일 것이…… 어느 사찰에나 2—3基씩 많은 곳은 20—30基 혹은 그 이상 되는 곳도 많다. 그러나 그 많은 浮屠에 主人公과의 관계 銘文이나 建造緣起(年代等)가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 혹시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壬亂後인 朝鮮後期の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壬亂前의 浮屠로서 建造年代가 확실하고 主人公을 알 수 있는 것을 살펴 본 결과 5基를 찾아 낼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밖에도 樣式이나 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壬亂前의 建造物임이 틀림없는 것도 몇 基 있었으나 本稿에서는 言及하지 않기로 하였다.

本論의 자료로 소개 할 5基의 浮屠를 年代順으로 적으면 靑龍寺 普覺國師定慧圓融塔, 檜巖寺浮屠, 福泉寺 秀庵和尚塔, 福泉寺 學祖燈谷和尚塔, 傳新興寺址盧閑堂塔인데 이 가운데에서 檜巖寺址浮屠만은 寶物로 지정되어(보물 제388호)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이들 5基의 石造浮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기 지니고 있는 특수한 양식이나 조각 수법을 찾아 내고자 한다.

1. 靑龍寺 普覺國師定慧圓融塔

靑龍寺 절터는 현재 충청북도 中原郡 蘇台面 五良里 부락에서 서북쪽으로 약 2km되는 淸溪山(표고 907m) 남쪽 기슭에 남아 있다. 이곳은 행정구역으로 볼 때는 충청북도 일지나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原城郡 貴來面과 접경이며 兩面이 道界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강원도에서 가까운 편이라 하겠는데, 이절터에서 뒤편 淸溪山 중턱으로 약 10분간 걸어 올라가면 근년에 새로이 축대를 쌓고 창건한 靑龍寺가 있다. 현 住持僧(南斗鎭氏 53歲)의 말에 의하면 6·25 동란후 이곳이 古代의 절터라 전해 듣고 入山하여 현재의 건물을 새로 짓고 절 이름을 동네사람들의 口傳에 따라 靑龍寺라 하였다는데 지금 이곳에는 南向한 草家 2棟 뿐으로 불상도 최근에 조성하여 봉안한 것이라 한다.

이곳 靑龍寺址의 遺蹟 遺物에 관해서는 1967年 가을에 現地를 답사하여 그 후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⁶⁾ 이때 寺址와 普覺國師塔·塔碑를 비롯하여 舍利石函, 獅子石燈, 石鐘型浮屠, 石碑 등 현지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당시 고찰해 본 내용을 정리하여 普覺國師塔만을 살펴 보려고 한다.

普覺國師定慧圓融塔은 평탄한 대지에 잘 다듬은 長大石으로 1段의 축대를 쌓고 塔殿을 마련

(6) 拙稿: 「中原 靑龍寺址의 調査——普覺國師定慧圓融塔과 塔碑 및 石燈을 中心하여——」, 史叢 第12·13合輯(高麗大學校 史學會刊 1968, 9)

하여 그 중앙에 건립하였던 것이니 浮屠의 앞에는 拜禮石이 있고 그 뒷편에는 塔碑가 서 있으며 拜禮石이 있는 측대 바로 앞에는 獅子石燈이 놓여 있어 마치 고려시대의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을 증식한 塔碑殿과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⁷⁾

현재 이들 石造物은 모두 原位置에 原形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獅子石燈은 근년에 새로 지은 靑龍寺 앞뜰에 옮겨져 있고 普覺國師塔은 완전히 쓰러져서 地臺石 밑의 石函이 드러나 보이며 拜禮石도 움직여졌는데 다만 塔碑만이 原位置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있으나 이 碑도 뒤로 기울어졌다.



1. 靑龍寺 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殿

쓰러진 普覺國師塔은 각부재가 현지에 완전한 상태로 모두 남아 있으나 基壇部의 中臺石만은 원위치에서 약 40 m 떨어진 능선 밑으로 옮겨져 있다. 靑龍寺 住持僧의 말에 의하면 언제인지는 모르나 忠州市內에 居住하는 者가 이 浮屠를 몰래 운반해 가려고 한 소행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부락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浮屠가 쓰러진 일에 대해서는 日帝時代末期에 外地에서 잠입한 피한 4名에 의하여 대낮에 파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普覺國師塔은 八角圓堂型으로서 八角의 無紋地臺石위에 건립된 것인데 현재는 지대석까지 파괴 되었으므로 地下에 묻혔었던 이른바 藏骨處(舍利藏處)까지 조사 할 수 있었다. 이 藏骨處

(7) 이 塔碑殿의 옛터는 지금 강원도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의 法泉寺址 동북쪽 높은 대지에 있으며 지금은 塔碑만이 남아 있고 기타 여러가지 石材가 산란한데 이에 관해서는 「考古美術 資料 第11輯, 高麗智光國師塔碑殿址調査概要 (金東賢編 考古美術同人會刊, 1966)를 참조.



2. 普覺國師塔과 藏骨石函

는 花崗岩 一石으로 造成한 것인데 外側面을 不等邊八角形으로 다듬고 上面에 圓形으로 弧形의 돌뿔을 마련하였으며 內面은 二重의 圓孔으로 되어 있다.

石造浮屠에 있어서 地下에 藏骨處를 마련하고 관계 유물을 奉安한 유례는 興法寺眞空大師塔⁽⁸⁾과 興寧寺址 石造浮屠,⁽⁹⁾ 瑩源寺址 浮屠⁽¹⁰⁾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石棺이나 石室이니 이곳 普覺國師塔의 藏骨石函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곳의 이러한 형태의 藏骨處는 특이한 구조에서는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그 造成年代도 뚜렷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¹¹⁾

普覺國師定慧圓融塔의 구조는 지대석 위에 기단부를 구성하고 그 위에 塔身의 屋蓋를 重積한 형식으로 현재 屋蓋위의 輪軸部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유감인데 이제 各部材의 細部 樣式을 살펴 보고 原形으로 復原될 모습을 놓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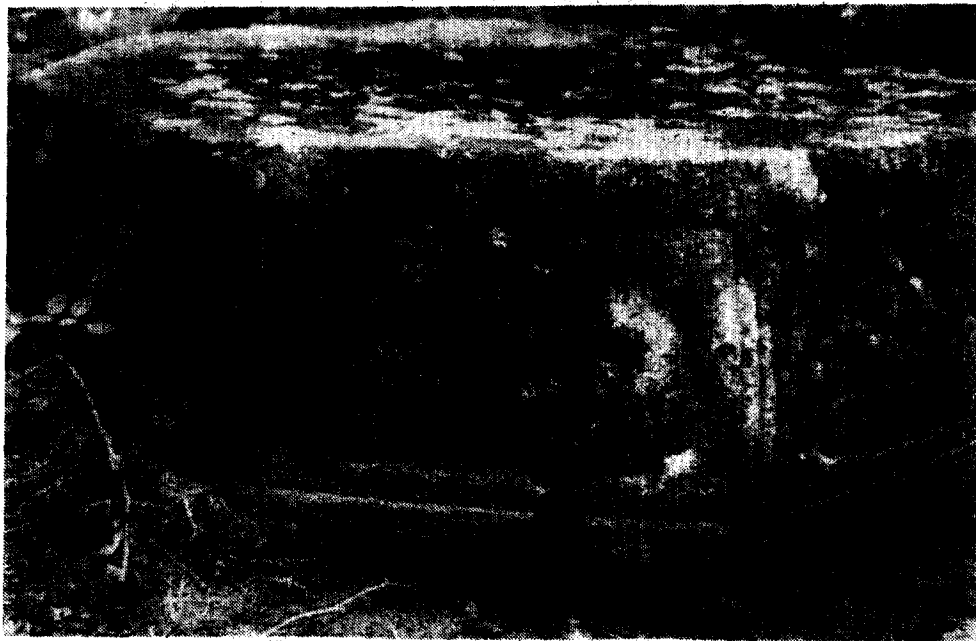
비교적 높은 편인 八角地臺石 상면을 八角下臺石이 꼭 들어 맞게 파고 下臺石을 놓았는데 下臺 측면은 아무런 문양의 조각도 없으나 상면의 伏蓮은 16瓣으로 各瓣內는 三山形의 花瓣이 彫飾되었으며 角形 一段반침으로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는 「엔타시스」가 현저하며 각 側面에 長方形의 眼象이 음각되었는데 一面에는 歩行의 형상을 한 獅子像을 양각하고 다른 面에는 雲

(8) 文化財大觀 寶物篇 上(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刊, 1968)참조. 이 石造浮屠와 附屬石棺은 현재 경복궁 안에 옮겨서 보물 제365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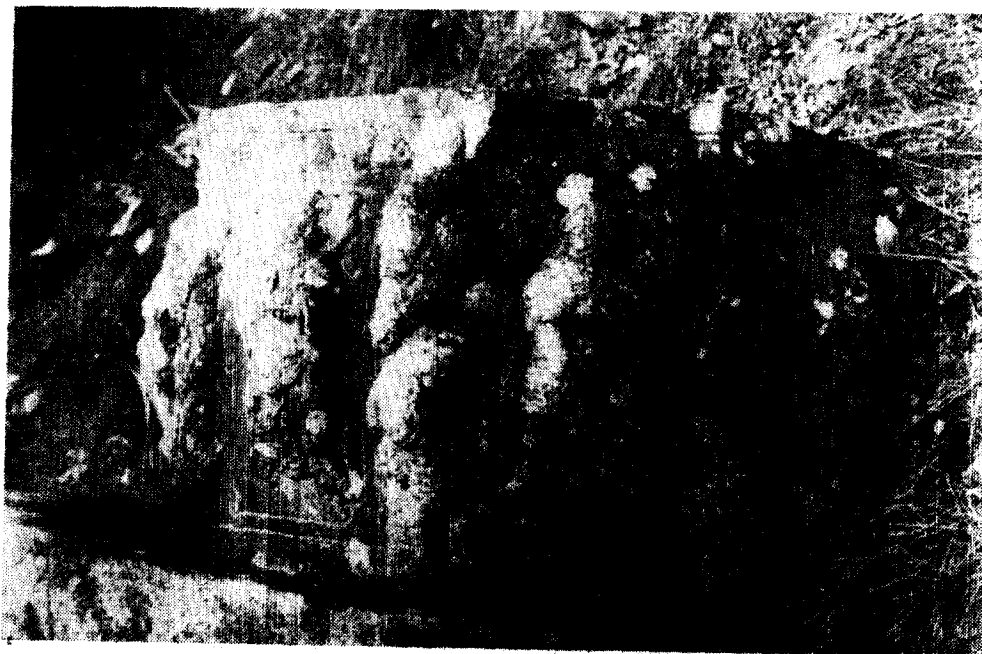
(9) 拙稿: 「新羅 獅子山興寧寺址 研究」白山學報 第7號(白山學會刊, 1969. 12)遺囑大師寶印塔의 推定 項을 參照.

(10) 尹容鎮: 「瑩源寺址와 出土遺物」考古美術第4卷第6號(서울 考古美術同人會刊, 1963. 6) 參照

(11)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지에는 塔碑가 원위치에 남아 있어서 이 碑文에 의하여 이곳 諸石物의 造成緣由 및 年代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겠다.



3. 普覺國師塔斗 八角中臺石



4. 普覺國師塔斗 塔身石

龍을 장식하여 이러한 조각이 八面に 交互로 배치되어 있다. 上臺石 하면에는 一段의 角形받침이 刻出되고 仰蓮16瓣이 조각되었는데 그 형태나 各瓣內의 彫飾은 下臺와 相對的이며 側面도 無紋이고 上面에 塔身 庇임이 刻出되지 않은 대신 地臺石 上面처럼 八角으로 홈을 파서 塔身石이 꼭 끼워지도록 한 意匠이 주목되는 것이다.

塔身도 약간의 「엔타시스」가 표현되었으며 各面の 長方形眼象內에는 神將像이 一軀씩 양각되어 그들은 모두 武器를 들었는 바 필자가 현지를 답사할 때 조사 확인한 것은 六面인데 나머지 地面에 付着埋沒된 二面도 同形同式이라 생각 되나 혹시 그 중 一面에 門扉가 模刻되어서 이 浮屠의 塔名이라도 刻字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八角塔身の 各隅柱는 「테리이프」가 강한 圓柱形으로 木造건축물에서 보듯이 「엔타시스」가 현저한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엔타시스」의 圓柱에 蟠龍이 기둥을 감고 기어오르고 있는 조각이다. 이러한 蟠龍彫飾의 유례는 完州三奇里石燈의 竿柱⁽¹²⁾와 神勒寺普濟尊者石鐘前石燈의 火舍石⁽¹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造成時期는 이들보다 後代⁽¹⁴⁾이나 그 형태와 조각수법에서 볼 때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圓柱上에는 昌枋과 같이 木造架構의 各部가



凡. 普覺國師塔의 屋蓋石(下面)

(12) 「文化財大觀」寶物篇 中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刊, 1969) 참조.

(13) 上掲書 참조.

(14) 完州 三奇里石燈은 신라말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神勒寺 普濟尊者石鐘前 石燈은 고려말기인 1370년의 건조물로 모두 앞서는 유물이다.

표현되어 더욱 주목 되고 있으며 塔身의 上面 중앙에는 정교한 圓孔⁽¹⁵⁾이 있는데(外徑 10cm, 內徑 7cm, 深 14cm의 크기임) 이것은 물론 舍利孔으로서 이 塔碑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國師를 茶毗하였던 바 骨色이 白如雲하고 그 頂骨尤厚且淨」하였다 하니⁽¹⁶⁾ 國師의 이 頂骨만을 圓孔에 奉安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밖의 拾骨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地臺石 밑의 石函內에 藏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塔身部를 덮고 있는 屋蓋石 또한 八角으로서 下面의 頂上에는 塔身의 圓形隅柱 上部의 昌枋 머리와 접착되는 부분이 보머리形을 이루고 있으며 추녀와 사레도 양각하였고 16瓣의 單葉蓮華紋을 조각하는 데 各瓣內에는 윤곽을 따라 一條紋을 돌리고 瓣端에 만 三葉花紋을 조각하였다. 屋蓋石 頂面에는 8瓣의 單葉伏蓮을 돌려 寶珠괴임을 이루고 있고 落水面은 上端部가 급경사로서 고려시대 石造物의 屋蓋樣式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¹⁷⁾ 「개와골」은 없으나 各合角마루에 龍頭를 놓아 당시 木造架構를 잘 具現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체로 普覺國師 浮屠의 구조를 살펴 보았는데 이 石造浮屠는 고려시대 浮屠의 양식 및 조각수법을 계승하고 고려말·조선초기의 木造건축물의 各部 架構를 石造物에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建造年代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조선시대 浮屠中 대표적인 最秀作으로 우리 나라 美術史上 조선 초기의 건축 및 조각, 각부의 문양 등을 연구함에 있어 그 표준이 되고 또 다른 石造浮屠의 年代推定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이 浮屠의 各部材를 모아 復原圖를 그려본 결과(圖 6. 參照) 全高가 2.54m(相輪部를 제외한 實測值임)가 되었는데 이러한 규모는 羅·麗代를 통해 볼 때 결코 작은 石造浮屠는 아니며, 作風 그 자체도 당시의 시대적인 여러문제를 생각할 때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안다.

한편 이 石造浮屠의 建造年代에 관해서는 塔碑文에 의하여 國師의 行蹟 및 여러 가지 관계 내용과 아울러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塔碑 前面銘文 25行에

「上情惻悼命攸司賜諡曰定慧圓融差遣內臣監其厝骨又勅工造浮屠以其年後十二月 甲申寔于青龍寺之北峯是夜星朗鷄鳴雨作迨果石乃歇衆異春秋七十三夏臘云云」

라 보인다. 이에 따르면 春秋73歲에 入寂하니 太祖는 슬퍼하며 諡號를 내려 普覺이라 하고 그 塔을 定慧圓融이라 하였는데, 그 다음해(國師의 入寂은 太祖元年, 1392年으로 밝혀져 있음)⁽¹⁸⁾인 太祖 2年(1393)에 浮屠를 造成하여 青龍寺 北쪽에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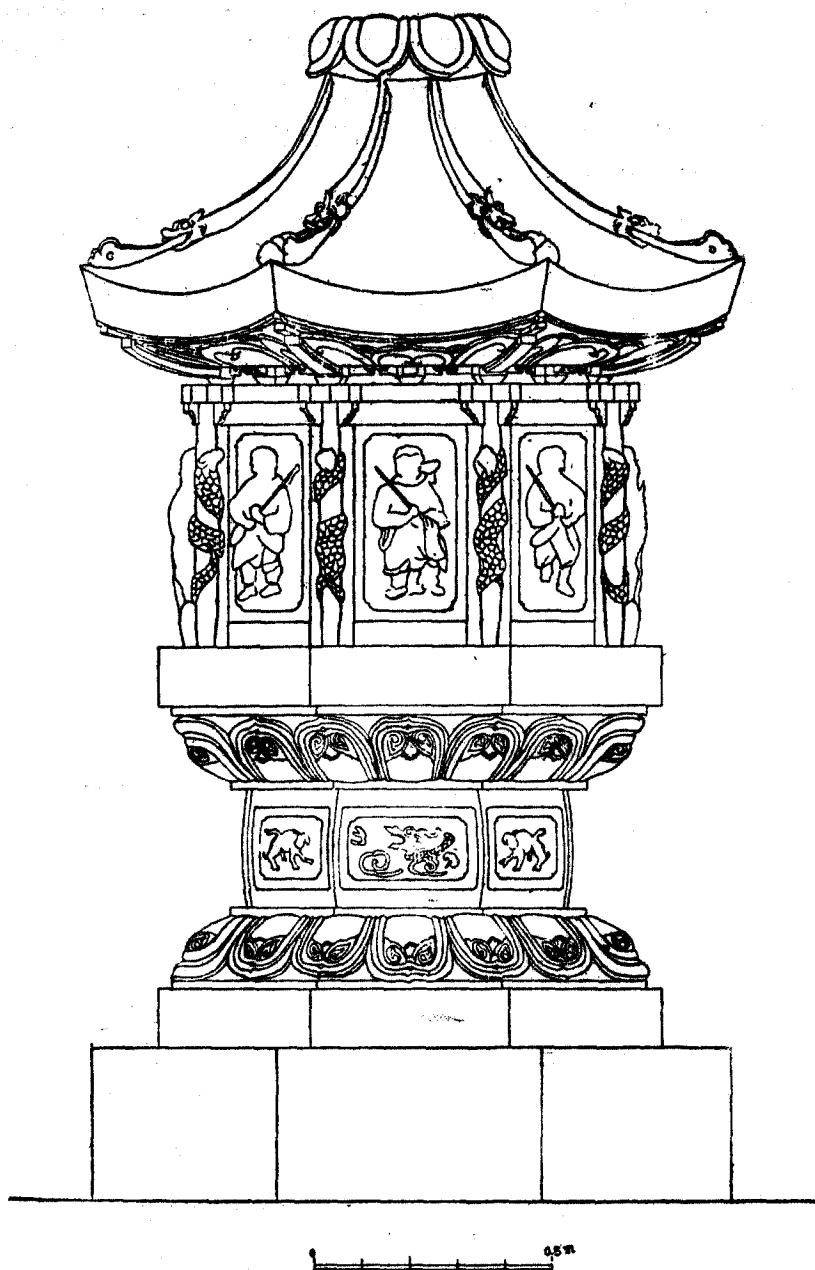
普覺國師는 경기도 廣州郡 豐壤縣人으로 俗姓은 趙氏이며 諱는 混修, 字는 無作, 號는 幻庵

(15) 上面 中心部에 圓孔을 마련 하였는데 口緣에 얇은 圓孔을 돌리고 그 中心에 깊은 舍利孔을 施孔하였으니 그 형태와 治石手法이 정교함은 지대석 밑의 藏骨石函과도 같다고 하겠다.

(16) 碑文에 의하면 「...門人積薪茶毗于宴晦庵之北麓……拾骨色白如雲其頂骨尤厚且淨…」라 하였는 바 이 全文은 「朝鮮金石總覽」下卷 722頁를 참조.

(17) 신라식의 屋蓋石추녀가 조선인제 비하여 고려시대 양식은 曲線을 이루었으며 그 곡선이 轉角에 이르러 더욱 蓋해진다.

(18) 塔碑에 보면 李太祖 即位年 9月 18日에 示寂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普覺國師定慧圓融塔의 實測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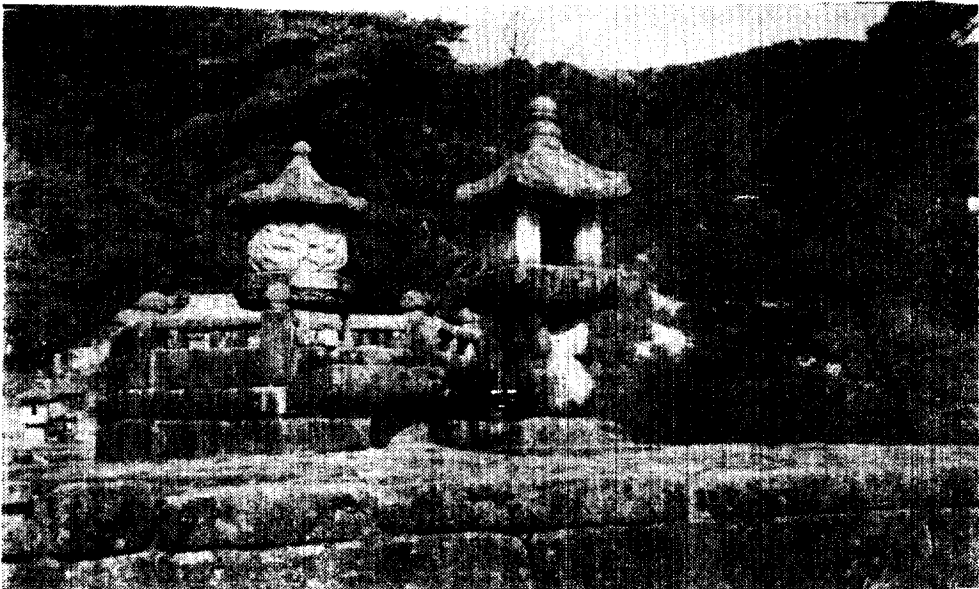
인데 高麗 第27代 忠肅王 7年(1320)에 出生하여 22歲 때 禪選上上科에 올랐고 禪王 때 國師로 모셨으며 李太祖가 潛邸時부터 瑞雲寺에 모시어 크게 慶會를 마련하고 登極後에도 表賀하는 등 大師는 麗末鮮初에 걸쳐 추앙을 받던 高僧이었음을 알아 두어야 하겠다.⁽¹⁹⁾

2. 檜巖寺址浮屠

高麗末에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檜巖寺는 특히 朝鮮初期 李氏王家의 庇護를 받던 가장 큰 寺刹이었다. 그렇듯 유명하던 巨刹이 오늘에는 폐사되고 경기도 楊州郡 檜泉面 檜岩里 天寶山 남쪽 기슭의 넓은 遺墟에 礎石만을 남기고 있으며 서북쪽 동 떨어진 山 중턱 쪽에 새로 세운 小規模의 庵子가 있어 檜巖寺라 이름하여 前代의 寺號를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

檜巖寺는 일찍이 麗末에 高僧 懶翁이 重創하고 스승 指空의 靈骨을 奉安한 곳이었다. 朝鮮을 創業한 李太祖도 懶翁의 弟子이며 그의 王師인 自超(無學大師)를 檜巖寺에 住錫케 하여 太祖 스스로가 幸行도 하고 寺刹에서 佛事 法會가 있을 때마다 內臣을 보내어 參禮하게 하였던 것이니 과연 檜巖寺가 麗末鮮初에 있어서 王家 乃至는 國家의 裨補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現 檜巖寺의 동쪽, 稜線이 떨어 내려오는 南北線上에 懶翁, 指空, 無學 등 三和尚의 浮屠가 차례로 건립되어 있는 바 이곳은 옛절터로부터 북쪽 山中턱으로 약 700m되는 地點이니 이렇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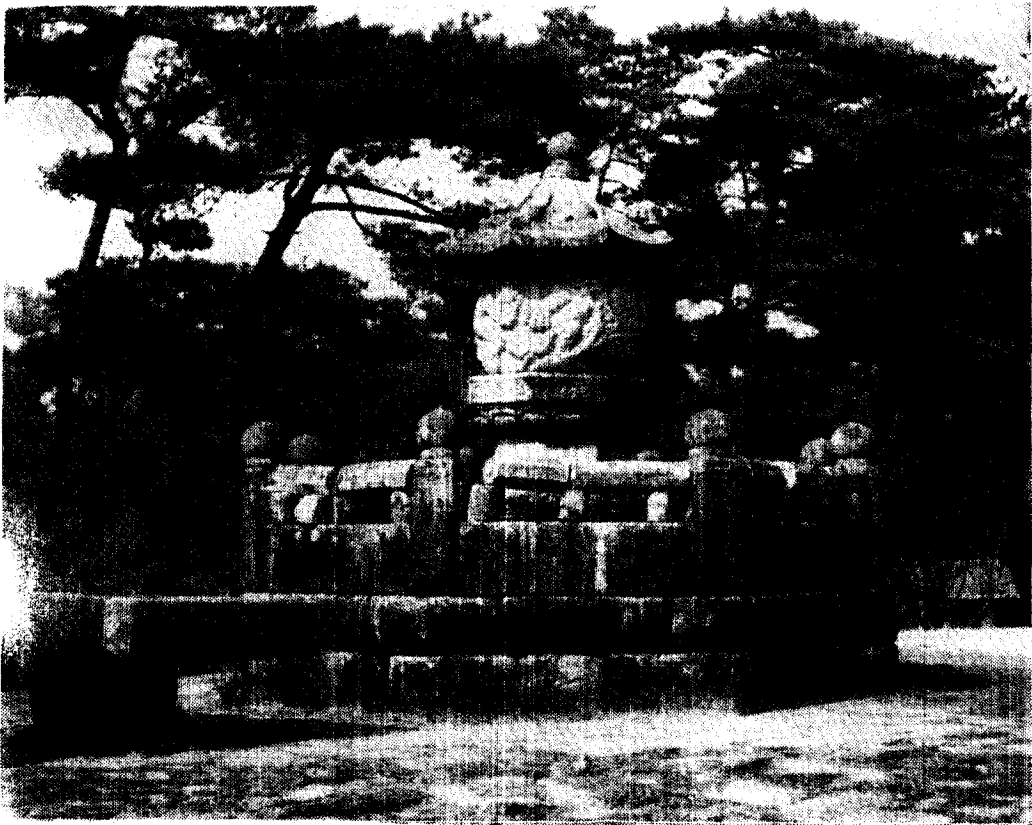
7. 檜巖寺址浮屠와 雙獅子石燈

(19) 普覺國師에 대해서는 현재 原位圖에 남아 있는 塔碑의 內容에서 자세히 알 수 있겠고 이 밖에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碑文을 수록한 朝鮮金石總覽 下卷을 비롯하여 朝鮮佛教通史, 朝鮮禪敎史, 朝鮮史 第四編 第一卷 등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三代에 걸친 王師들의 浮屠가 한 자리에 建造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上記한 바와 같은 연유에서 일 것이다.

이 三浮屠中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것이 無學大師의 浮屠이고 이 밖의 二基의 浮屠는 上端(북쪽)에 위치한 것이 懶翁의 浮屠이며 中間의 浮屠가 指空의 舍利塔이라 알려져 있는데⁽²⁰⁾ 南端의 浮屠가 無學의 것이라는 데는 아무런 異議가 없으나 나머지 二基에 대해서는 아직도 論議가 있음을 부언해 둔다.

自超 無學은 高麗 第27代 忠肅王14年(1327)에 出生하여 朝鮮國 第3代 太宗5年(1405)에 入寂하였는데 그의 墓塔은 2年을 지나 太宗7年(1407)에 건립하였다. 麗末鮮初의 名僧으로 특히 李太祖와는 潛邸時부터 信心이 두터워 登極후에도 王師로서 추앙을 받아 新首都 占卜에 크게 활약 한바 있다.⁽²¹⁾ 현재 이 無學大師의 浮屠를 「檜巖寺址浮屠」란 指定名稱을 부르고 있으므로



8. 檜巖寺址 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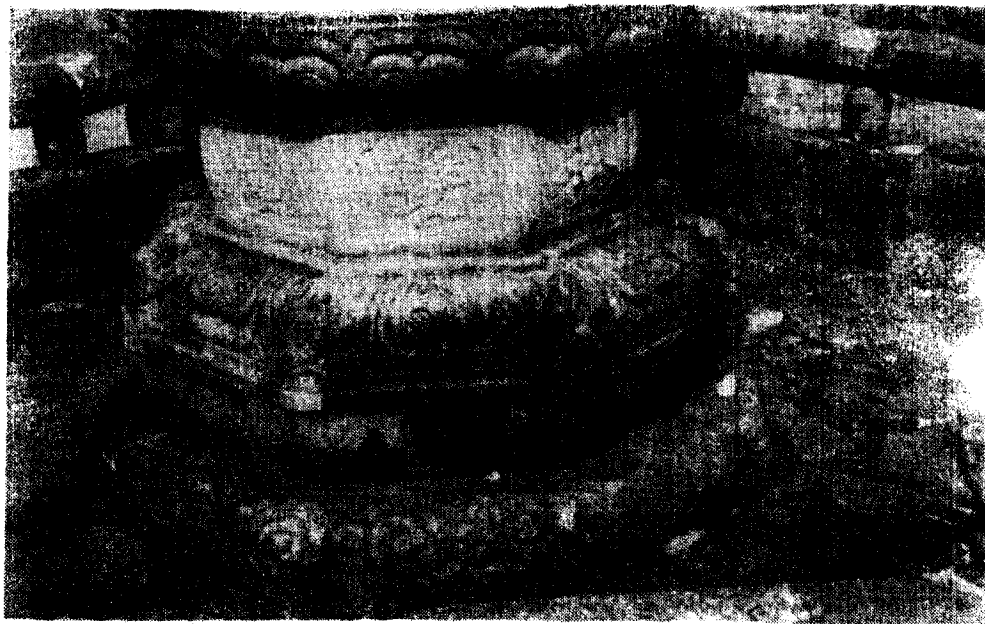
(20) 崔成鳳: 「檜巖寺의 沿革과 그 寺址調査」, 佛敎學報 第9輯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刊, 1972.10) 참조.

(21) 朝鮮金石總覽 下 1281頁 참조.

필자도 아직은 그대로 옮기고 있으나 이것은 곧「檜巖寺妙嚴尊者塔」이라 改稱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이 石造浮屠는 原位置에서 原形을 잘 갖추고 있으니 浮屠 앞에는 長方形의 拜禮石이 놓여 있고 그 앞에 雙獅子石燈이 놓인 것은 麗末에 건립한 神勒寺普濟尊者石鐘에서 그 先例를 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쪽의 一段 낮은 곳에 石碑가 세워져 있어서⁽²²⁾ 無學의 행적과 당시 그와 檜巖寺와의 여러가지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浮屠는 높고 넓직한 八角의 石壇위에 세워졌는데 이 石壇은 八枚씩의 長大石으로 二段을 쌓았으며 上端 下端部에는 副緣形이 알개 模刻되었다. 이 石壇위에는 각 隅角마다 方形石柱를 세웠는데 그 頂上에 寶珠形을 圓刻하고 石柱와 石柱사이에는 長大石을 嵌入하였으며 이 長大石위에 童子柱를 세우고 欄竿石을 돌렸다. 그러므로 浮屠는 결국 이 八角의 石壇 中央에 세워져서 주위의 方柱와 欄竿石에 둘러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浮屠를 봉안하기 위한 一種의 壯嚴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後日에 나타나는 王家의 胎室의 經營과 一脈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 할 수 있다.⁽²³⁾



9. 檜巖寺址 浮屠의 地臺와 基壇部

(22) 이 碑石은 「檜巖寺妙嚴尊者塔碑」로서 본래는 鮮初인 太宗10년에 세웠던 것이나 현재의 것은 純祖28년에 重刊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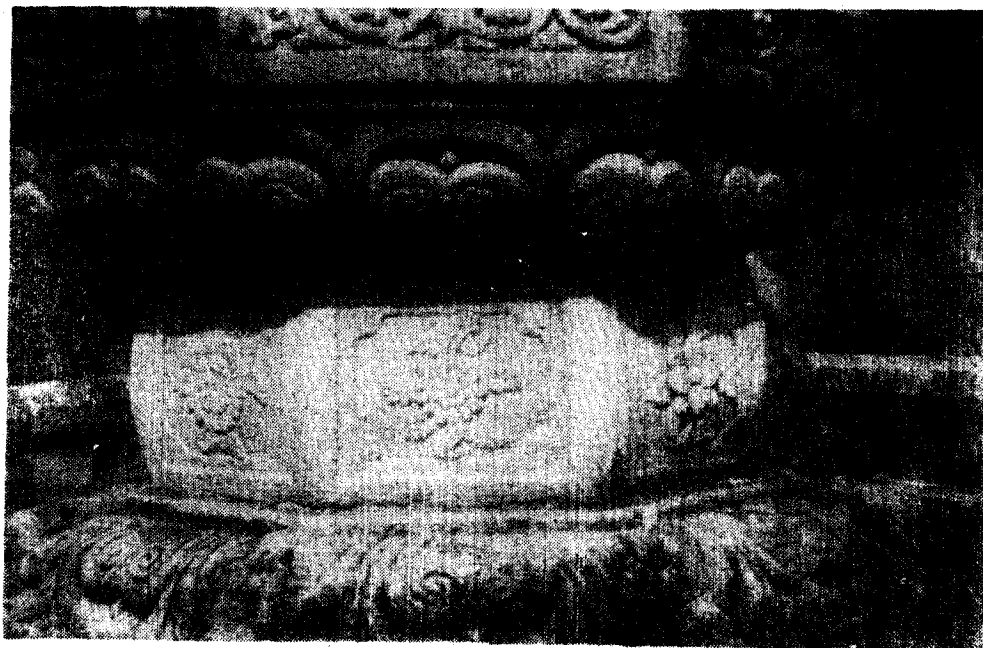
(23) 朝鮮時代에 이르러서의 胎室이 前·後期를 막론하고 모두 이러한 樣式임을 작처에서 볼 수 있는 바 그 代表로 世宗과 端宗의 胎室을 들 수 있겠다. 「世宗 端宗胎室修改及表石堅立儀軌」 考古美術資料 第19輯(考古美術同人會刊 서울, 1967.7) 참조.

이 浮屠는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基壇部 위에 塔身, 屋蓋石을 重積하고 그 위에 相輪을 놓아 他例와도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基壇部를 받고 있는 地臺石은 一石으로 되어 八角의 邊마다 太彫의 雲紋을 장식하였는데 각 모서리의 雲紋은 유난히 크다.

基壇部는 下臺石위에 中, 上臺石을 순서로 마련하였는데 下臺는 側面에서 下端部까지 좁아들었고 上端에 이르면서 蓮華紋을 장식한 蓮臺石이다. 이 蓮華는 伏蓮으로 瓣內에 고사리紋形의 문양이 장식된 蓮華 16葉이 둘러 있고 각 隅角에는 귀꽃을 표시하고 있으나 위축되어서 花瓣에 밀착 되었다. 中臺石은 下臺 上面 中央에 刻出한 一段의 角形피임위에 놓여 있는데 배가 부른 八角 鼓腹形이다. 이 中臺 各面에는 方框을 돌린 속에 隅角이 內入된 方形眼象이 있고 그 안에 각기 형태를 달리하는 花紋이 각 면마다 양각 되었다. 上臺石은 仰蓮石으로 下面에 角形 一段의 받침이 彫出되고 16瓣의 仰蓮이 둘러 졌는데 그 형태와 瓣內의 장식문양 등은 伏蓮石인 下臺와 같으나 다만 각 隅角에 귀꽃紋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上臺側面에는 各面마다 長方形 框을 돌리고 그 안에 唐草文을 양각하였는 바 太彫이어서 섬세하고 流麗한 인상은 주지 않는다.

塔身은 上臺石 上面中央에 安置되었으나 塔身피임臺 등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이것은 時代의 降下에 따라 省略의 경향을 보이는 一面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²⁴⁾ 塔身의 형태는 球形으로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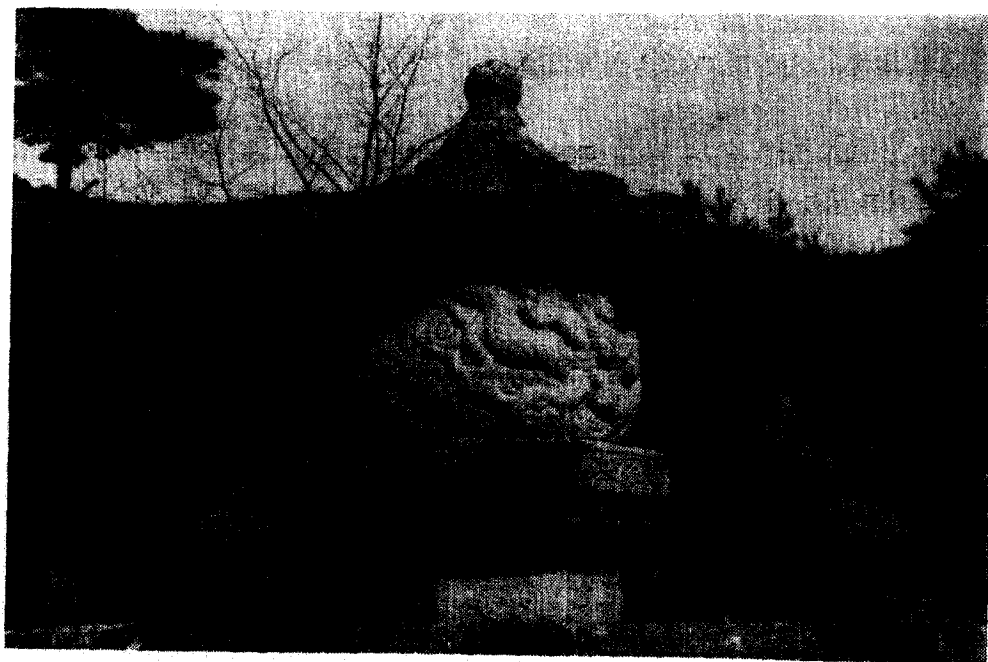


10. 檜巖寺址浮屠의 基壇部 (中臺石)

(24) 先代에 건조된 대개의 경우는 塔身을 받치는 피임臺가 1—2 段씩 마련 되어 있다.



11. 檜巖寺址 浮屠의 塔身部



12. 檜巖寺址 浮屠의 塔身과 屋蓋石

下端을 切斷하여 자기 屋蓋와 上臺面에 잘 맞도록 되어있다. 圓形 塔身 表面에는 太彫의 雲龍紋을⁽²⁵⁾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龍頭와 龍鱗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雲紋도 胴體사 이에 빈틈 없이 彫飾되어서 雄渾한 塔身의 建造手法을 살필 수 있다.

屋蓋石은 圓形 塔身과는 달리 八角인데 塔身과 접속되는 下面에 料拱의 退化된 형식이 模刻되고 頭角을 향하여 椽木이 편어있다. 추녀는 平薄한 편이며, 八隅는 反曲되고 轉角에도 약간의 反轉이 있어 심한 鈍重感은 면하고 있다. 屋蓋石 落水面의 경사는 上部에서는 급하나 내려오면서 차차 완만해지고 있다. 落水面에는 八條의 隅棟이 굽게 내려와서 각 轉角에 이르고 있는데 下端部에 있어서는 자기 龍頭를 刻出시키고 있어 곧 앞서 살펴본 靑龍寺址의 普覺國師塔 屋蓋石上面의 龍頭를 연상케 한다.

輪軸部는 屋蓋 頂上에 구멍을 뚫고 (徑 13cm) 寶珠를 꽂고 있는 간소한 형태이나, 그 밑에 2段의 圓臺가 있음은 先例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古式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朝鮮初期에 건조한(1407) 無學大師의 浮屠를 살펴 보았다. 浮屠에서 주목되는 것은 前面에 石燈이 건립되고 拜禮石이 놓여 있는 것과 특히 石壇을 쌓아 浮屠를 그 中央에 安置하고 주위에 欄竿을 시설하여 귀중하게 보호(奉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石燈과 拜禮石은 앞서 考察한 靑龍寺 普覺國師塔에서도 볼 수 있었으나 이 주위 護衛의 欄竿시설은 없었다.

浮屠 자체의 양식에 있어서는 八角圓堂型을 基本으로 하고 地臺石과 上·中·下臺의 基壇部에 蓮華와 기타 花紋을 華奢하게 彫飾하였는데 특히 塔身部の 雲中 三龍은 上記 普覺國師塔 塔身部圓柱의 蟠龍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屋蓋石落水面 八隅 合角마루의 龍頭는 兩浮屠가 同一한을 보인다.

屋蓋石의 형태와 基壇 各部의 形式, 그리고 雲龍紋과 仰伏蓮 등은 高麗代의 그 樣式手法을 그 대로 잘 보이고 있는 바이며 규모도 전고 약 2.7m나 되고 있으니 石造浮屠로서는 작은 것이 아니며 普覺國師塔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이다.

3. 福泉寺⁽²⁶⁾ 秀庵和尚塔

福泉寺는 현재의 俗離山 法住寺 福泉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庵子에서 동쪽으로 약 200m 上庫庵으로 가는 길 山모퉁이를 돌아 올라가면 石造浮屠 2基가 있다. 남쪽으로 뻗은 稜線의

(25) 龍은 雲中の 三龍으로 그의 一頭는 南으로 正面하고 나머지 二頭는 北에서 서로 맞보고 있어 塔身 전체가 雲중에 湧渦치는 三龍의 문양으로 빈틈이 없다.

(26) 이 福泉寺는 현재 충청북도 報恩郡 俗離面 舍乃里 俗離山에 자리잡은 法住寺의 屬庵 福泉庵을 말함인데 현재는 法住寺에 소속된 庵子이나 본래는 福泉寺로 창건되었고 또 이곳 事蹟記에도 「福泉寺事蹟」이라 보이므로 오래된 石造物을 論함에 있어 여기에 福泉寺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한편 庵子側에서 말하는 「福泉庵沿革」은 新羅 聖德王19年(720 A.D.)에 창건 하였고 朝鮮時代에 이르러 壬辰倭亂의 兵火로 全燒되었는데 그후 仁祖2年(1624)에 碧巖스님이 重建하였다고 한다. 이 庵子의 옛이름은 月城庵이었는데 世祖께서 이곳에서 3日間 기도드려 難治의 病이 나았으므로 福泉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世祖와 이곳 福泉庵의 관계는 「福泉寺事蹟」 「世祖實錄」에 자세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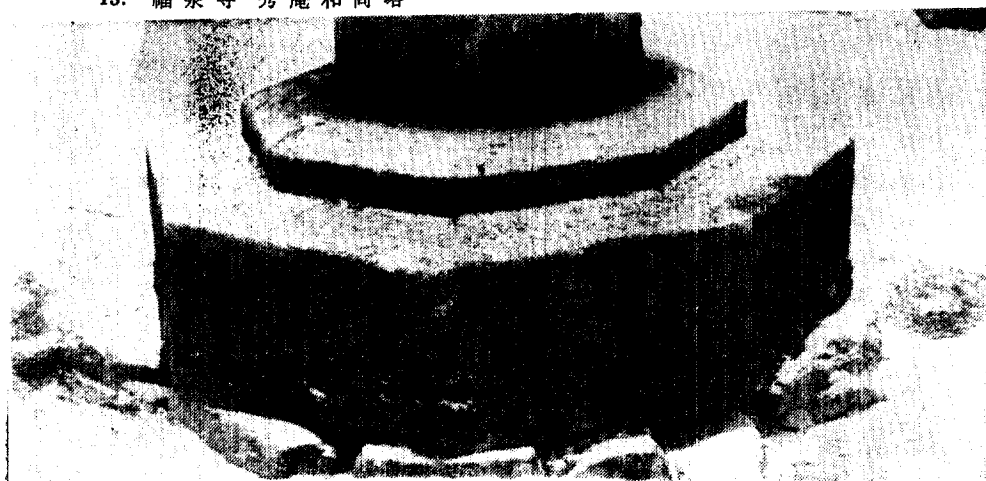


13. 福泉寺 秀庵和尚塔

한 중턱에 평평하게 臺地를 마련하여
높이 44cm, 넓이 7.7m, 길이 17.2m
의 축대를 쌓고 그위 南北線上에 浮屠
를 建造하였는데 南쪽의 것이 秀庵和
尚塔이고 北쪽의 浮屠가 다음 項에서
검토하려는 學祖燈谷和尚塔인 것이
다.

秀庵和尚塔은 原位置에서 原形을
잘 갖추고 있는 浮屠인데 基臺와 塔
身部の 結構處에 石灰로 補強한 흔적
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舍利裝置
의 盜難如否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많은 雜石으로 地盤을 단단히 하고
그 위에 浮屠를 建造하였는데 현재 그
雜石들이 露出되어 있어서 주변의 土
層이 깎여나간것이 확실하며 또 下層
基壇 下端側面은 흠에 묻히도록 되어
있어 治石이 조잡하다. 浮屠의 構
成은 基壇위에 塔身이 놓이고 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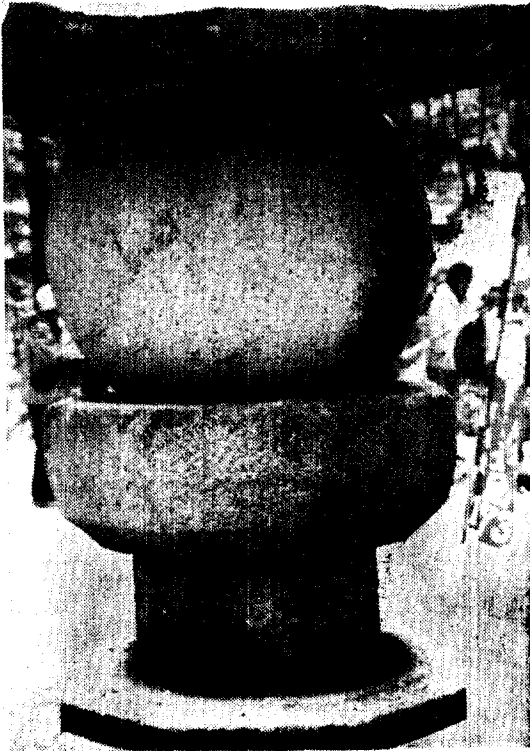
14. 秀庵和尚塔의 基壇部

에 屋蓋石이 덮혀 있으며 頂上에 相輪을 장식하여 전형적인 古代의 石造浮屠樣式을 보이고 있다.

基壇部는 雜石으로 다져진 基礎위에 地臺石이 없이 놓여지고 上·中·下臺로 형성되었는데 下臺石은 八角으로서 側面이나 上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고 上面中央에 높직한 괴임臺가 一段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 괴임臺도 물론 八角이고 側面, 上面에 아무런 彫飾이 없다. 다만 側面上端에서 上面으로 이르면서 中間쯤까지 약간의 傾斜를 보이고 그 다음은 平面이며 여기의 八角의 각 隅角에는 合角線을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또 한 段의 괴임을 생략한 形式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中臺石도 八角으로 각 側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는데 그 놓임에 있어서 下臺上面을 약간 조아내어 中臺下端이 끼워지도록 固定시킨 手法이 주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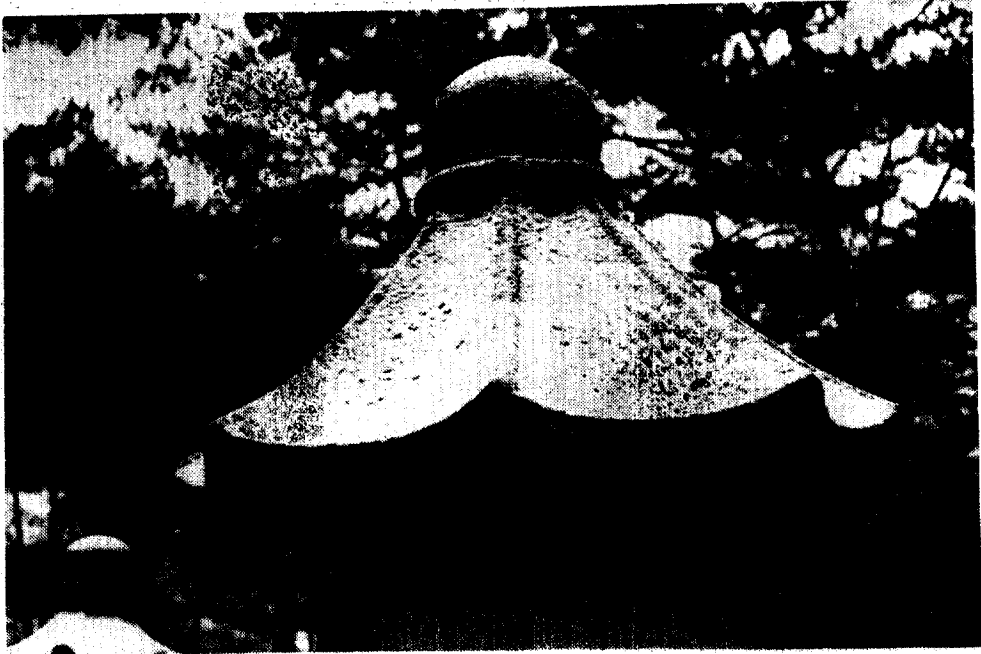
上臺石도 역시 八角으로 表面에 아무 彫飾이 없다. 下面에 받침도 하나 없고 다만 斜形으로 된 각 隅角에 合角線이 뚜렷한데 이것은 下臺石上面의 괴임臺 上面手法과 같은 것으로서 이와 對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側面도 中間쯤에서 그 下端쪽으로 약간의 斜面을 이루어 下促의 형태를 보이며 八角의 合角線이 뚜렷한데 이러한 形式은 넓은 側面에 아무런 彫飾이 없는 대신 各面의 변화로 多少의 裝飾意匠을 나타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 秀庵和尚塔의 基壇과 塔身部

塔身은 上臺 中央에 놓았는데 그 괴임臺等 아무런 시설이 없고 다만 塔身下端部가 놓일 만큼 治石하여 固定시켰다. 형태는 球形으로 上下端을 약간씩 切斷하여 각기 屋蓋石下面과 上臺石上面에 固定토록 하였으며 表面은 아무런 彫刻, 銘文도 없고 곱게 다듬었는데 그 圓을 그린 曲線이 아주 부드러우며 安定感을 준다.

屋蓋石은 八角으로 下面에 아무런 裝飾이 없고 塔身 上端이 固定되는 곳에 둥글게 물뿜을 한 段마련하고 있으며 八角의 轉角部에 연결되는 線刻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屋蓋石上面은 八角마다 頂上에서 各轉角에 이르기까지 곱게 合角머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落水面의 傾斜는 上端에서 急하나 下端部에 이르러는



16. 秀庵和尚塔의 屋蓋石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屋蓋 各邊은 曲線을 보이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며 轉角의 返轉도 거의 垂直이어서 鈍重함은 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輕快한 作風으로는 볼 수 없다.

相輪部는 화려하지 못하고 屋蓋石 頂上에 寶珠만을 彫刻하였다. 이 寶珠는 球形을 거의 半으로 切斷한 圓形인데 그의 下端에는 얇은 一段의 圓形괴임과 그 밑에 높은 圓座 한段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圓臺나 寶珠에는 별다른 彫飾이 없으나 이러한 寶珠의 형식은 先代에도 흔히 있었다.

이 石造浮屠는 現全高 3.02 m로 大型에 屬한다. 各部의 平面은 塔身과 寶珠가 圓形이며 이밖의 모든 部材는 八角이다. 그러므로 이 秀庵和尚塔은 八角圓堂型의 浮屠임을 곧 알 수 있는 한편 이 塔에는 基壇 中臺石 한 側面에 다음과 같은 三行의 銘文이 縱으로 陰刻되어 있어서(字徑 6—7.5cm)이 石造浮屠의 主人公과 建造年代를 알 수 있는 것이다.

「秀庵和尚塔」成化十六年」八月日立」

이 내용에 의하면 제 9대 成宗11年 庚子(1480⇒成化16年) 8월에 이 塔 즉 秀庵和尚의 塔을 세웠다는 것이다. 秀庵和尚이란 一名 慧覺尊者라고도 稱한 信眉大師를 일컬음인데 信眉는 현재 江原道 平昌郡의 五臺山月精寺에 보관중인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보물 제140호)

과 관계된 王師로서 有名하거니와⁽²⁷⁾ 한편 世祖와는 일찍부터 교섭이 있었음을 王의 手記中.....⁽²⁸⁾

自予潛邸以來 我慧覺尊者(信眉) 早相知遇道合心和 每提攝於塵路 使我恒懷淨念 不沈欲坑 致有今日 非師功耶.....」

으로도 알 수 있고 그당시 또한 世祖의 王師였던 守眉와 極親한 道友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며 世祖와 成宗대에 걸쳐 大學者였던 乖崖金守溫의 伯氏였음도 여러 文集과 記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바인데, 이 信眉大師의 浮屠가 이곳 福泉庵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信眉가 俗離山法住寺에 있어서 守眉가 이곳에 찾아와 서로의 道友가 이루어진 바⁽²⁹⁾ 이후 世祖의 존경을 받던 중 특히 世祖가 福泉庵에까지 率宗勲政府六曹百寮將相하고 極樂殿에 들어가 法場供養했다는 「福泉寺事蹟」內容을 볼 때 이곳에 大師의 浮屠를 모실만한 일인



17. 福泉寺 學祖燈谷和尚塔

것이다.

이 浮屠에서 注目되는 것은 基壇部에 있어서 地臺石이 생략되었고 上·中·下臺의 어떠한 面 어떤 部材에도 彫飾이 없다는 것이고 塔身部도 또한 그러하며 屋蓋石에 있어서도 落水面 등 아무런 架構에도 莊嚴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構成의 調和를 볼 때 表面裝飾이 없으므로 소박하게 보이는데 基壇이나 塔身部에 비해 屋蓋石이 유난히 크고 重厚하여 鈍重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蓮華紋, 귀꽃紋, 雲龍, 龍頭 등의 彫刻이 있다면 鈍厚한 전체의 인상이 달라질 것인 바 이러한 無彫飾이 當代의 作風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 福泉寺 學祖燈谷和尚塔

이 石造浮屠는 앞에 말한 秀庵和尚塔에서 약 6m 떨어진 뒷면(北쪽)에 建立되었으며 原位置에 原形을 잘 갖추고 있다. 前者와 같이 基壇部와 塔身の 各 接續部에 石灰로 補強한 것이 보이

(27) 이 勸善文은 天順八年, 즉 世祖10年(1464)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은 당시 世祖와 信眉와의 관계 및 世祖의 佛心を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8) 「忽漚谷快天著 朝鮮禪教史(東京 1930.) 339頁 참조

(29) 靈巖道岬寺妙覺和尚碑(朝鮮金石總覽 下 857頁) 碑文 참조

나 이것으로서 奉安內容物의 盜難如否를 알 수는 없다.

雜石을 많이 넣어 地盤을 굳치고 그위에 浮屠를 건립한 것으로 현재 그 雜石들이 많이 露出되어 있어 이 浮屠의 주변도 역시 많은 흠이 깎여진 것으로 알겠다.

浮屠의 構成은 基壇部위에 塔身을 놓고 그위에 屋蓋石을 덮었으며 頂上에 相輪을 장식한 형식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地臺石이 생략되고 雜石의 地盤위에 下臺石이 놓였는데 그 중간까지는 흠이 묻히도록 側面이 조잡하고 中上部는 곱게 治石하였다.

基壇部는 上, 中, 下臺石으로 형성되었는 바 平面이 모두 八角이다. 下臺는 地臺石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높은 편이며 側面이나 上面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이 上臺石위에는 中臺를 받기 위한 높직한 괴임臺가 마련되어 下臺 上面을 얹게 파고 이 괴임돌을 곱아 固定시켰는데 괴임돌이 別石으로 造成된 것이어서 一見하여 괴임臺를 下臺로 보고 下臺石을 地臺로 잘못 알기 쉽다. 이 괴임臺는 八角의 各側面에 兩쪽 隅柱를 刻出하고 上邊이 甲石形으로 되어 있으나 그 內面에는 별다른 彫飾이 없다. 괴임臺 上面은 各邊端으로부터 완만한 弧形을 그리면서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八角의 各隅에는 合角線이 뚜렷하다. 그리고 弧形의 斜面이 끝난 中間部 위는 平面인데 여기에는 二段의 낮은 角形괴임을 彫出하고 그 위에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石은 隅柱 등 별다른 장식 없이 놓였는데 上下端의 上下臺와 接하는 부분에 약각석의 石灰補強處가 보이나 이것은 近年의 일로 보이지는 않으며 傷痕도 없다.



18. 學祖燈谷和尚塔의 基壇部



19. 學祖燈谷和尚塔의 基壇과 塔身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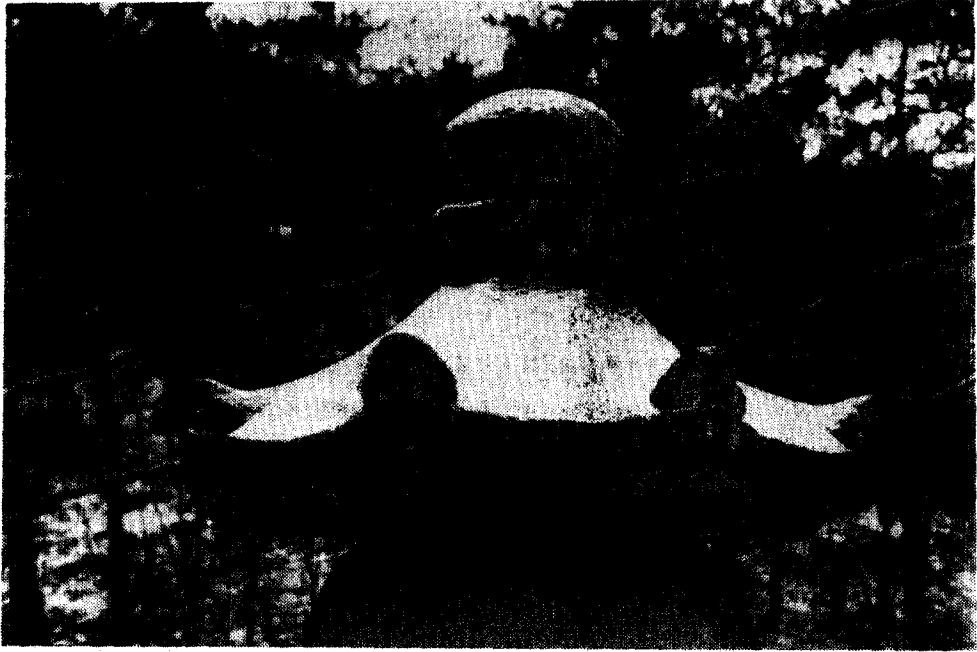
평한 上臺위에 놓여진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圓形의 表面에는 아무런 彫刻이 없으나 곱게 다듬어서 面과 曲線이 부드럽고 정연하다.

屋蓋石은 下面 中央部の 塔身위에 놓이는 부분에 圓形의 물뿔이 있고 이로부터 八隅의 轉角에까지는 각기 合角이 표시되었을 뿐 다른 특수한 架構나 彫刻은 없다. 屋蓋石上面은 上端部에서 약간 急傾斜를 보이거나 中間부터는 완만해 지고 있다. 落水面은 八隅마다 合角머리가 굽게 표시되었는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각 轉角部에 이르러는 귀꽃이 하나씩 彫刻된 것이다. 이 귀꽃紋은 三山形의 周緣안에 고사리紋과도 같은 三山形귀꽃을 陽刻한 것인데 그 技法에 있어서 重厚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귀꽃紋은 先代의 石造浮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落水面 各邊의 曲線은 완만하고 각 轉角에도 返轉은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落水面의 平薄한 것과 잘 어울려서 屋蓋石, 혹은 전체적인 調和에서 다소의 輕快感을 주고 있는 것이다.

相輪部는 屋蓋石 頂上에 彫刻하였는데 낮은 弧形의 圓座위에 굽직한 圓臺를 마련하고 그위에 또 한 段의 낮은 弧形의 圓座, 도합 三段의 大小 圓臺를 마련하여 그 위에 寶珠를 彫刻하였다. 寶珠는 下端部가 위보다 약간 좁아 들었으며 表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는데 이러한 형태의 寶珠는 先代의 浮屠 相輪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上臺石은 側面 下邊의 모(角)를 죽이고 弧形을 이루었고 이에 연속하여 一段의 반침을 彫刻하였는데 이것은 斜面이어서 下臺 피임돌의 上面과 對稱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角形一段의 반침이 刻出된 것도 그 段數는 같지 않으나 下臺 피임돌과 대칭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上臺 側面은 中間에서 약간 위에 太條가 둘러지고 이 線條로 區劃된 上面은 약간 좁아져서 마치 피임臺의 意匠으로도 보여진다. 中臺石은 이렇듯 下面과 側面에 반침이나 太條 뿐으로 이밖에 별다른 彫飾이 없다.

塔身은 球形으로서 上·下端을 약간씩 切斷하여 治石하고 각기 屋蓋와 上臺石에 固定되도록 하였다. 上端보다는 下端部가 더 많이 切斷되어 위는 좁고 밑은 넓은데 이것은 安定感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鈍重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으며 塔身 피임도 없는 평



20. 學祖燈谷和尚塔의 屋蓋石

이 學祖燈谷和尚塔은 현재 全高 2.96m로서 同築壇에 建立되어 있는 秀庵尙塔과 거의 같은 規模로 大型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浮屠는 塔身과 相輪部만이 圓形이며 이 밖의 모든 部材는 平面이 八角이다. 그러므로 이 石造浮屠는 八角圓堂形임을 곧 알 수 있다.

한편 이 浮屠에는 基壇 中臺石 側面一面에,

正德九年「甲戌五月」日立「學祖燈谷」和尚塔

이라는 五行의 銘文이 縱으로 陰刻되어 있어서(字徑 6—7cm) 이 浮屠의 建立年代와 主人公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제11대 中宗 9年 甲戌(1514⇒正德 9年) 5월에 이 塔, 즉 學祖燈谷和尚塔을 建立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學祖燈谷和尚이란 一名 黃岳山人이라고도 하는 學祖大師를 말함인데 燈(燈)谷이란 그의 號이다. 世祖 때 여러 高僧과 함께 佛經을 번역하여 刊行한 바 있고, 특히 成宗 19年(1488)에서 仁粹王大妃의 命으로 海印寺를 重修하여서 유명하다. 그리고 燕山君 때에 이르러는 王 6年(1500)에 愼妃의 發願으로 因하여 大藏經 8,000餘卷을 印刊하고 스스로 그 跋文을 썼다고 한다.⁽³⁰⁾ 그런데 이 學祖大師의 浮屠가 어찌서 이곳 福泉庵에 信眉大師의 浮屠와 함께 자리를 하

(30) 「海印寺事蹟」에 의하면 알 수 있다. 「朝鮮碑教史」 353—354頁, 「朝鮮佛教通史」上권 442頁, 「朝鮮人名辭書」 1977 頁 참조

고 있을까 하는 문제는…… 보편적으로 佛家에서는 入寂한 僧侶들의 墓塔을 한 場所에 建立하여 이른바 浮屠群이라 稱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兩大師의 浮屠를 이러한 緣由에서만 생각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世祖가 王10年(1464⇒天順 8年) 2월에 이곳 福泉庵에 行幸하였을 때의 일을 朝鮮佛教通史 上권(415頁)에서 살펴 보면,

二月二十八日 王幸俗離山福泉寺 見信眉斯智 學悅 學祖等諸禪師 大設法會 三日而罷 傳教於戶曹 給田二百結 米三百石 又令刑曹屬臧 奴婢也三十口 俾爲香火之資

라 있어, 당시 學祖大師는 當代의 高僧大德들과 福泉寺에서 住錫하고 있었으며 이밖의 기록으로 보아 특히 信眉大師와는 師弟之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學祖大師의 浮屠가 이곳에 있는 것이며 그 位置도 스승인 信眉의 浮屠 뒷편을 擇하여 불과 6m의 사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³¹⁾

이 學祖大師浮屠에서 注目해야 될 점은 基壇部에 있어서 地臺石이 없으며 上, 中, 下臺 어떤 部材에도 裝飾紋樣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中臺石을 받든 臥室臺는 秀庵和尚塔과 같이 마련되어 있다. 塔身部에도 별다른 彫飾은 없으나 前代에서도 볼 수 있었던 圓球形으로 造成되었다. 屋蓋石에 있어서는 落水面이 平薄한 편이고 특히 八角의 각 轉角위에 귀꽃紋이 彫刻되어 있어 다소 裝飾의인 面을 보이고 있으며 相輪部의 寶珠에 있어서도 그 밑에 大·小 圓臺의 臥室臺가 마련되어 있어 역시 그러한 意匠임을 알 수 있겠다.

石造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균형이 잡히고 安定感도 있으나 鈍重함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轉角의 귀꽃과 寶珠의 裝飾意匠에서 多少 鈍厚感을 덜고 있는 것이다.

5. 傳 新興寺址 盧閑堂塔

경상남도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에 자리잡은 雙谿寺는 智異山西麓에서 가장 큰 寺刹이고 특히 眞鑑禪師大空塔碑(국보 제47호)를 비롯하여 石造浮屠(보물 제380호) 大雄殿(보물 제500호) 등의 指定物이 있으며 이 밖의 梵鐘, 六祖頂上塔, 佛幀 등 많은 遺物이 保存되어 있어 이름난 곳이다. 이 雙谿寺 入口에서 智異山 七佛庵으로 들어가는 도중 약 5 km되는 凡旺里 新興部落에 新興國民學校가 있는데 雙谿寺에서나 이곳 洞民들은 본래 이 부락에 新興寺라는 절이 있어서 洞名도 그렇게 붙여진 것이라 한다.⁽³²⁾ 그리하여 國民學校와 部落일대가 옛 절터라고 하는데 현재 이곳 주변에서는 瓦片을 수집 할 수 있다.

石造浮屠는 部落에서 西北方 뒷쪽으로 약 60 m되는 山기슭의 雜草 우거진 속에서 調査한 것

(31) 본래 師弟之間의 浮屠位置는 스승의 浮屠를 앞에 하고 그 뒷편으로 弟子의 것을 세우는 법이다. 이것이 한 原則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地形문제로 인하여 부득히 弟子의 浮屠가 앞에 세워진 것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32) 이 이야기는 필자가 現地調査時 雙谿寺 僧侶, 洞民들로부터 傳聞하였으므로 小題에도 「傳新興寺」라고 하였다.

인데 倒壞되어 各部材가 완전히 分散되어 흐터진 各部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 四方에 흐터진 거리가 수십m씩 되었으나 거의 한곳에 모아놓고 검토하였는데 相輪部材만은 찾지 못하였다. 이제 各部材를 순서대로 復原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表面을 평평하게 고르고 약 40cm 깊이로 판위에 自然石 一石(51cm×36cm, 厚 35.5cm) 上面에 圓孔(徑 21cm, 深 14cm)을 마련하여 묻고 그 위에 거의 六角形의 一枚 自然板石(徑 88—106cm, 厚 18—20cm)을 덮었는데 이것은 主人公의 舍利와 粉骨을 奉安하였던 이른바 舍利, 藏骨處로서 本稿에서는 序頭에 소개한 靑龍寺址普覺國師定慧圓融塔에서 그 先例를 보았다.⁽³³⁾ 현재 이 遺構는 그 部材가 露出되어 있어서 잘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 자리가 原位置인 것도 확실하다.



21. 盧閑堂塔의 基壇部(側面)

이 浮屠는 이러한 地下 藏骨構造위에 건립된 것인데 地臺石은 별도로 없고 圓孔을 뚫은 自然板石위에 그대로 基壇이 놓인 것이다.

이 石造浮屠의 構造는 八角圓堂型의 先例와도 같이 基壇部위에 塔身이 奉安되고 그 위에 屋蓋石을 덮었으며 頂上에 相輪을 장식하고 있다.

(33) 普覺國師塔에서는 塔身에 舍利孔이 있고 다시 地臺石 밑에 地下에 石材로 藏骨處를 마련하였으나 여기서는 塔身에 舍利孔이 없고 地下에만 시설하고 있어서 舍利와 그의 粉骨 등을 함께 이 地下圓孔內에 奉安하였던 것 같다.



22. 盧閑堂塔의 基壇部(上面)

基壇部는 同一石으로 造成되었으며 花崗岩一石에 上, 中, 下臺를 표시하였다. 下臺는 下端部가 自然石 그대로이어서 埋沒되는 부분인 것 같으며 八角 隅角에는 넋직한 複葉의 伏蓮이 一瓣씩 彫飾되어서 八瓣의 蓮華臺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괴임을 刻出하여 그 위에 中臺를 받고 있는데 이 角形괴임 臺는 아주 정연하여 조잡한 下端部와 대조적이다.

中臺는 낮게 마련하였으며 八角의 各面에 兩隅柱가 표시되었는데 각 內面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上臺는 下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이 彫出되고 側面에는 八角의 各 隅角에 넋직한 單葉의 仰蓮을 一瓣씩 彫刻하여 모두 八瓣의 蓮華紋을 장식하였는 바 그 瓣端이 側面 上緣까지 미치고 있어 立狀形의 蓮瓣으로 보인다. 上面에는 八角에 各一瓣씩 蓮瓣端이 陽刻되었으며 그 中央에 太彫의 圓帶가 있고 그 內面을 얇게 파서 그 위에 圓形의 塔身이 固定되도록 하였는 바 이 圓帶는 결국 塔身의 괴임臺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塔身도 一石으로 造成되었는데 卵形의 上·下端을 切斷한 형태이다. 切斷한 上·下面은 평평하게 잘 다듬어서 上, 下 接해지는 部材와 固定되도록 처리되었으며 塔身 側面은 부드럽게 다듬어져 曲線이 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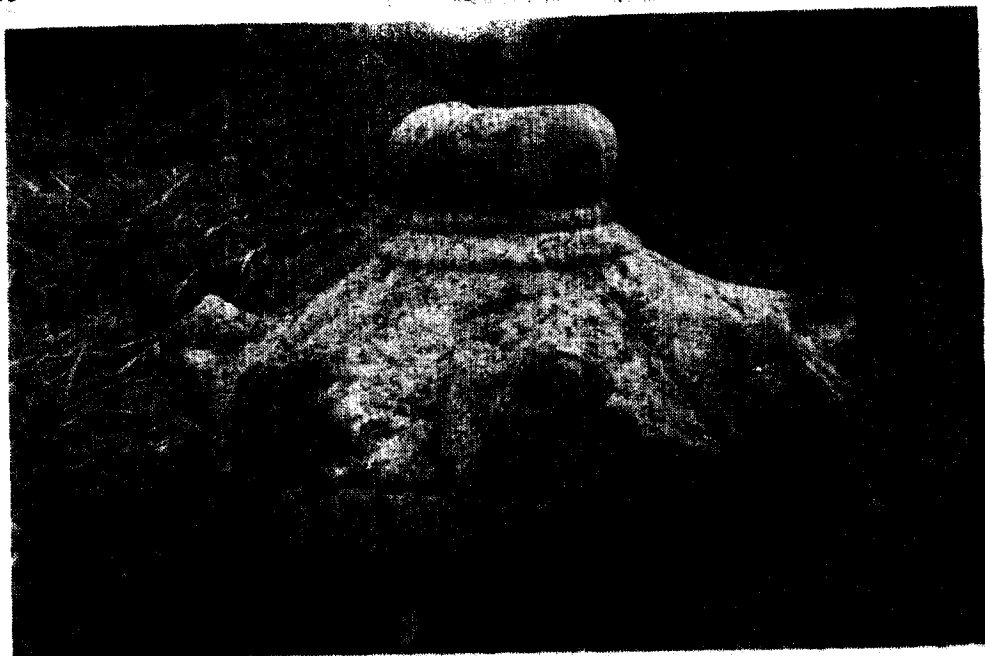
八角으로 된 屋蓋石은 下面의 中央에 太彫 二段의 圓帶를 刻出하고 그 內面을 얇게 파서 塔身의 圓形上端이 끼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圓帶 二段은 곧 屋蓋받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屋蓋 처마는 완만한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隅角마다 合角의 표시로 線文이 굽게 陽刻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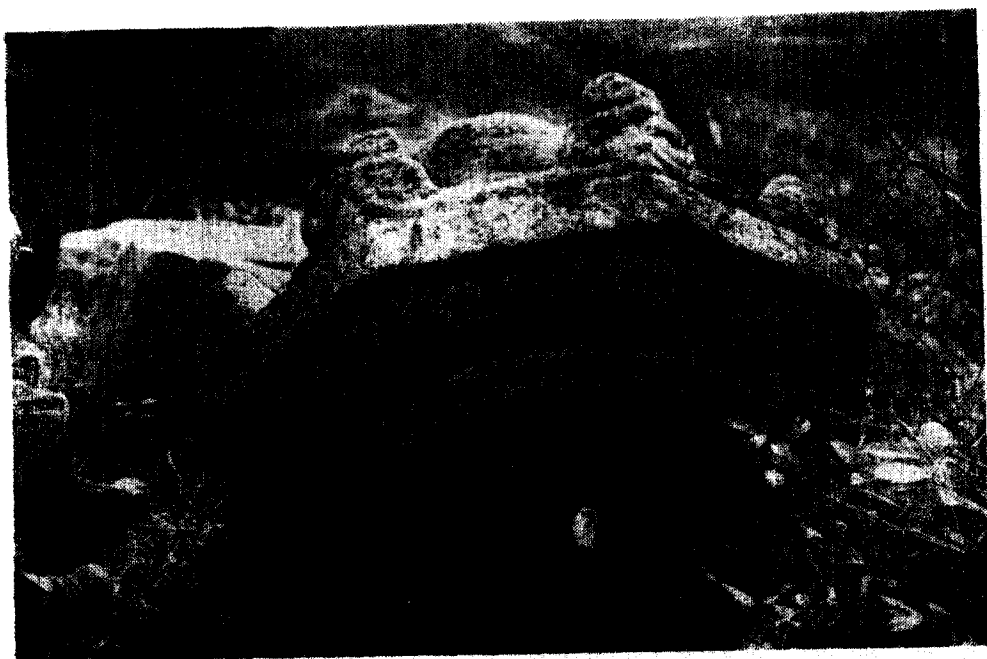
23. 閑盧堂塔 基壇部の上臺上面



24. 盧閑堂塔의 塔身



25. 盧閑堂塔斗屋蓋石(側面)



26. 盧閑堂塔斗屋蓋石(下面)

어 있다. 그리고 側邊은 甲石모양으로 추녀가 직선이고 下面과의 구별이 명확하여 마치 落水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隅角에는 轉角의 返轉 표시보다는 큼직한 귀꼴이 하나씩 장식되어서 注目을 끄는데 귀꼴紋은 通式의 高사리紋으로 三山形이다.

落水面은 平薄한 편이고 八隅의 合角이 뚜렷하며 각 合角머리 사이에 屋蓋頂上에서 下端까지 골을 표시하는 二條線이 陰刻되었다. 그런데 이 二條의 陰刻線이 下端部에 이르면 각기 귀꼴쪽으로 갈라졌는데 이러한 형태를 屋蓋 頂上에서 내려다 보면 귀꼴을 각 瓣端으로 한 큼직한 單葉蓮華紋 八瓣으로 落水面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相輪部는 屋蓋 頂上에 蓮華紋 圓座를 마련하여 그 위에 一段圓臺의 庇임을 彫出하고 아주 높은 寶輪을 彫刻하였는데 그 上面 中央에 큼직한 圓孔이 파여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寶珠의 下面突起가 꼽혔던 것이 아닌가 한다.⁽³⁴⁾

이 石造浮屠는 復原高 約 1.9 m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各部의 平面은 塔身과 相輪部가 圓形이며 이 밖의 모든 部材는 八角이다. 그러므로 이 浮屠는 八角圓堂型임을 곧 알 수 있는데 한편 이 浮屠에는 塔身 表面에 다음과 같은 二行 十七字의 銘文이 縱으로 陰刻되어 있어서(字徑 3—4cm) 이 浮屠의 主人公과 建造年代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萬曆十年三月日判「曹溪宗師盧閑堂立塔」

이 내용에 의하면 제14대 宣祖15年(1582⇒萬曆十年) 3월에 건립한 이 塔曹은 溪宗師 盧閑堂의 浮屠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盧閑堂은 어떠한 僧侶인지 여러 記錄에서도 아직 보지 못하였는 바 혹시 이곳 新興寺의 重創과도 관계 있는 人物인지 모르겠다.⁽³⁵⁾

이 石造浮屠에서 注目되는 것은 地下에 舍利孔이 마련되어 그 藏法의 一例를 보여주는 것과 基壇部에 있어서 地臺石이 생략되고 특히 上, 中, 下臺도 一石으로 造成된 점이다. 그리고 그 主人公과 建造年月을 기록하되 塔身에 陰刻하였으며 屋蓋에 있어서는 曲線을 보이는 추녀가 아니고 甲石形으로 변하고 落水面도 귀꼴과 蓮華紋으로 이루어져서 屋蓋로서의 「덮개」의 인상을 減하고 있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도 先例의 各部 樣式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部分的인 형식과 手法에 있어서는 많은 省略과 退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基壇部가 一石으로 造成되고 上·下壇의 蓮瓣이 윤곽만을 특별히 太彫하여 形式에 호르고 있으며 屋蓋가 鈍化되고 있음은 이러한 面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主人公, 立塔 관계 銘文 등을 塔身에 새기는 것이 과거 塔碑를 따로 세웠던 例와는 전혀 다른 바로 浮屠 그 자체의 尊嚴性과도

(34) 寶珠를 最上部에 장식하는데 있어서 그 下部材와 同一石으로 造成할 때는 별문제이나 別石으로 되었을 때는 그 下面에 突起를 만들어 꼽도록 되어 있는 것이 通例이다.

(35) 다른 僧侶의 浮屠보다 諸形式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通例에 따라 그렇게 생각 된다는 것이다.

관계되는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Ⅲ. 比 較 考 察

以上 朝鮮時代前期인 壬辰倭亂 前까지의 石造浮屠 5基의 各部 樣式을 검토해 보았다. 이들 5基의 各 建造年代를 보면 靑龍寺 普覺國師塔이 太祖 2年(1393)에 건립되었고 檜巖寺址浮屠가 太宗 7年(1407)에 건립되어 불과 14年の 차이이다. 福泉寺 秀庵和尚塔은 成宗 11年(1480)에 건립되었고 學祖大師塔이 中宗 9年(1514) 이어서 두 塔은 34年の 차이가나며 前者들과는 70—100여 년의 사이가 있다. 그리고 盧閑堂塔이 宣祖 15年(1582)에 건조되어 가장 늦다.

이와같이 諸浮屠는 그의 主人公 및 建造年代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朝鮮初期에 건립된 二基는 당시에 유명했던 高僧으로 國師, 王師로 추앙을 받던 분들의 浮屠이다. 그리고 福泉寺의 二基도 한 때는 世祖時 王師로 추앙된 바 있는 高僧의 浮屠인데 위 二基와의 建立年代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盧閑堂塔은 中央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當代의 高僧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그 寺刹을 중시하여 많은 功德을 쌓은 化主僧이었던 것 같다.

이 浮屠들에 대해서는 各項에 建造樣式 및 各部의 彫刻手法에까지 상세히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이들을 종합적으로 比較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靑龍寺普覺國師塔은 朝鮮初期인 太祖 2年에 건립되어 高麗 浮屠의 樣式과 手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國師의 墓塔인지라 그 表面裝飾의 화려함이 極致에 이르렀다. 그리고 檜巖寺址浮屠도 太祖의 王師였던 無學大師의 墓塔이어서 역시 莊嚴한 것이며 또한 建造年代도 普覺國師塔과 불과 14年の 차이 밖에 나지 않는 初期이어서 高麗時代 浮屠를 그대로 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70여년이 뒤진 福泉寺 秀庵和尚塔에 이르면 아무리 主人公이 王師였다 하더라도 浮屠 자체가 위축되어 初期에서 보았던 그렇듯 화려하고 장엄한 表面裝飾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地臺石도 省略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學祖大師의 塔은 더욱 建立年代가 멀어지는 하지만 스승인 秀庵和尚塔뒤에 세울려고 했을 때 先例를 따라 建造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樣式과 手法이 거의 같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主人公과 建立年代를 刻字함에 있어서도 基壇 中臺石 一面에 縱으로 數行씩 陰刻하여 모든 것이 같은 意匠이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慶南 河東郡의 盧閑堂塔은 이들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浮屠인데 八角圓堂型의 형식을 지키고 있으나 역시 규모에 있어서 위축되고 蓮華紋 등 各部彫刻이 退化의 경향을 잘 보이고 있어 朝鮮初以來 近200년이 지난 이때의 時代性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雙谿寺에는 羅末의 건립으로 推定되는 八角圓堂型의 石造浮屠가 현재 남아 있어 아

곳 一帶에서의 八角圓堂型 浮屠의 建造는 당연히 있음직하다.

그리고 五基의 石造浮屠를 一括했을 때 初期의 二基는 그의 塔碑가 건립되어 있어서 역시 高麗代와 同一함을 곧 알 수 있었고 이 후 三基는 浮屠자체에 刻字하고 있어 塔碑省略化의 경향인지 혹은 僧侶墓塔에 대한 尊嚴性的 부족인지의 문제를 생각하게도 된다.

IV. 結 語

이상의 各論과 比較考察에서 現存 五基의 石造浮屠 樣式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朝鮮時代의 國是가 아무리 抑佛, 排佛이었다 하더라도 太祖, 世宗, 世祖 등 諸王의 保護로 佛敎는 命脈을 유지하고 특히 이들 君主와 관계깊은 高僧들의 浮屠의 건립은 엄연하였음을 現存實物로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新羅·高麗代에 크게 유행했던 八角圓堂型의 石造浮屠 樣式이 朝鮮初期는 물론 前期 末인 壬辰倭亂 직전까지 계승되어 있는 사실을 實物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樣式과 各部手法에 있어서는 初期를 基點으로 한다면 이로부터 時代가 흐름에 따라 점차 略化退化되고 있는 경향을 實物에 의하여 직감할 수 있다. 즉 初期의 二基는 똑 같이 그 규모나 樣式, 手法 施紋에 이르기까지 高麗代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나 이후 半世紀가 훨씬 넘으면 八角圓堂型이라는 基本型은 유지하고 있으나 各部에서는 略化의 경향을 보이고 특히 表面 裝飾에서는 전면적으로 省略의 意匠을 露出시키고 있다. 더우기 거의 二世紀가 가까운 壬亂直前に 이르면 高麗의인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表面裝飾에 있어서의 諸紋樣도 初期에는 高麗代와 같이 蓮華紋, 眼象, 雲龍, 諸花紋 등 다채로웠던 것이 점차 사라지고 간혹 蓮華紋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주 退化되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앞으로는 注目하여 朝鮮時代浮屠를 검토 할 것은 墓塔에 따르는 塔碑가 時代가 뒤짐에 따라 점차 省略되고 관계 銘文을 浮屠자체에 刻字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抑佛 排佛에서 오는 時代性인지 모르겠다.

以上 간단한 검토는 首題와도 같이 朝鮮前期의 石造浮屠樣式을 論함에 있어 그 한 부분을 생각해 본 것이며 앞으로 完成해 보려는 것의 試論에 불과한데 역시 朝鮮時代 石造物은 아직 깊이 調査된 바 없어 앞으로의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調査研究를 끊임없이 진행하여야 되겠다.

A Study on Stone Stupas in the Early Yi Dynasty

Chung, Young-ho

A stone structure called pagoda includes a stupa as well as a common stone pagoda, which serves as an object of worship located in the center of a temple. In general, a pagoda means Buddhist one, while a stupameans a tombstone of a monk. Sacred relics (*salī*) and bones remaining after the cremation of a dead Buddhist priest, installed in a precious vessel, were either buried under the ground or kept in the hole dug in the stone grave called a stupa.

Such a tombstone of a monk, i. e., a stupa, must have been built since long ago — ever since Buddhism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no relic of the Three Kingdoms. The oldest one of stone stupas is Youm-Geo-Hwa-sang Pagoda which was built in the 6th year of King Moon-Sung of Great Silla (844 A.D.) After this, stupas of high priests were built here and there, and the number of stone stupas still remaining at present amounts to about ten.

As Buddhism was highly recommended during of the Koryo Dynasty, she developed into a Buddhistic nation. Consequently various works of Buddhistic fine art were produced and many stone stupas were built. We can still find scores of stupas nowadays.

During the Yi Dynasty, even from the beginning, they practised the policy of anti-Buddhism and pro-Confucianism, so that Buddhism was greatly troubled beyond reparation. Buddhistic fine art was also on the decline. But under such an oppression and suppression, in the period of Se-Jong the Great (1419-1449) and King Se-Jo (1455-1468), who were in favour of Buddhism, Buddhism resumed its liveliness. Temples were rebuilt and the number of monks increased accordingly. Buddhistic fine art in the Yi Dynasty was not apart from the policy of the kings and social conditions. For example, King Tae-Jo, Lee Sung-gye, built Suckwang Temple in return for his close relationship with Saint Moo-hak after he became the King; King Se-Jong built Naeb-

uldang in the palace; King Se-Jo built Wongak Temple, and Bongwon Temple and Bongson Temple were greatly enlarged in the period of King Myung-Jong.

A stupa is a structure which is in an indispensable relation with Buddhism itself. In spite of the policy of anti-Buddhism in the Yi dynasty as mentioned above, some kings favoured Buddhism. Thus, Buddhist temples could continue their existence despite troubles, and monks were able to hand down the Buddhistic tradi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any stupas of such monks still remain around temples. But anti-Buddhism policy repressed the birth of creative structure, and they continued their structuring activities merely with the style and technique handed down from the Koryo dynasty, which lasted till Yim-Jin Japanese Invasion (1592),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Yi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by the Japanese Invasion in its political as well as cultural respect, particularly in the history of fine art. So, when we refer to the period prior to the Japanese Invasion as the early period, we find that styles and techniques of Koryo were prominently prevailing in this period.

What the present writer aims at in this paper is an inquiry into the style of stone stupa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A stone stupa is structure only of stone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sculpture when its decorative designs and engravings are considered. Most of stupas attract our attention, for we can tell whose relics were buried in it and their monument tells us the year of their construction.

The present inquiry into the stone stupas in the early period of the Yi dynasty bears some significance and aims: firstly, to find out how many tomb pagodas were built in the period of anti-Buddhism policy; secondly, to investigate what style of stupas were established and what their style pedigrees are; thirdly, to know the engravings prevalent at that time by classifying contents of engravings and design on the stupas. To achieve these aims requires abundant material. Herewith the writer examines only five stone stupas construc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till just before the Yim-Jin Japanese Invasion. I chose only those five stupas with their construction years, whose relics were known.

The five stupas are list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order of their construction year:

Bo-Kak-Kuk-Sa Jung-He-Won-Young Stupa of Chung-Ryong-sa Temple (located at Oryang-Ri, Sodae-Myun, Jungwon-Gun, Chungchung-Bukdo); The Stupa in the site of

Hoi-Am-Sa (located at Hoi-am-Ri, Hoichun-Myun, Yangju-Gun, Kyungki-Do); Su-Am-Hwa-Sang Stupa of Bok-Chun-Sa Temple (located at Bok-Chun-Am of Bup-Ju-Sa Temple on Sok-Ri Mountain in Sansae-Ri, Sokri-Myun, Boeun-Gun, Chungchung-Bukdo); Hak-Jo-Deung-Gok-Hwa-Sang Stupa of Bok-Chun-sa Temple (located at the same place as the immediately preceding one); No-Han-Dang Stupa in the site of Sin-Heung-Sa Temple (located at Sinheung Village, Bumwang-Ri, Hwagae-Myun, Hadong-Gun, Kyungsang-Namdo).

Bo-Kak-Kuk-Sa Stupa at Chang-Ryong-Sa Temple was built in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 (1393) and should be thought to succeed the styles and sculpturing techniques belonging to the end of the Koryo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Hoi-Am-Sa Stupa with the design of clouds and dragon on its body, established in the 7th year of King Tae-Jong (1407), may be regarded as a Koryo-style sculpture. Su-Am-Hwa-Sang Stupa of Bok-Chun-sa Temple built in the 11th year of King Sung-Jong (1480) Hak-Jo-Deung-Kok-Hwa-Sang Stupa of Bok-Chun-Sa Temple built in the 9th year of King Jung-Jong (1514) stand in the same temple yard. The styles of their basestones, bodies and covers show old form, but their engravings were simplified or degenerated. No-Han-Dang Stupa in the Site of Sin-Heung-Sa was constructed in the 16th year of King Sun-Jo (1582), just before the outbreak of Yim-Jin Japanese Invasion. At this period, engravings of each part were formalized and their techniques were simplified. However, the basic style of the octagonal foundation formed in Silla was well kept, which means that the standard form of Silla and Koryo was well preserved in the early period of the Yi dynasty, i. e.,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t is clear that the Koryo styles were inherited in those stupas, despite of the decline of their decorative design.